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이성관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1948년 12월 부산 생
서울대학교 건축과 졸업(1972년)



대학선배의 권유로 건축과에 지망하다

그 당시엔 어떤 계기나 이유가 분명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3때 대학 선배들이 모교에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공대의 각 과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해 위었던 송유덕(가람건축) 선배가 건축과를 소개하면서 “공대 갈 애들 중에서 머리가 그리 둔하지 않을 정도에다 그림 좀 그럴 줄 알면 우리 건축과로 오면 좋을 것이다”라고 한 말에 내가 거기에 해당 되겠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해 보았던 정도가 기억나고, 고3때 친구들과 부산대학교를 거닐다가 김종업 선생이 설계한 본관 앞을 지나면서 “내가 하면 저것보다 낫게 할 자신이 있다”고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던 사실을 얼마 전 내 친구가 그 당시를 일깨워 주면서 “너는 그때부터 건축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증언해 준 게 전부일 정도입니다.

이 구 선생을 만나다.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우리들 대부분은 학교수업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 했습니다. 나는 더욱 그랬었던 편이고, 그 외중 설계과목만은 흥미가 있었지만 그 수업 자체 내용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 학부 4학년 2학기 때, 영친왕 아들이셨던 이구 선생님이 건축윤강이란 과목을 우리에게 영어로 강의하셨습니다. 그 분은 MIT를 졸업하고 I.M. Pei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힌 후 귀국하여 트란스아세아 대표로 있던 중이였지요.

첫 수업을 흥미로운 슬라이드 쇼로 마친 후, 우리에게 다음 과제로 가로 세로 7칸의 격자 위에다 36개의 각설탕으로 구성을 해 오라는 것이였지요. 초보적이고 간단한 내용의 숙제였지만 막연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지요. 왠지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가 담겨진 것 같았지요.

다음 시간, 우리가 한 여러 작품들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 “지금껏 해마다 여러 학생들에게 똑 같은 문제를 주어 왔었는데, 왜 단 한 번도 이런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흐트린 구성은 아닌, 가령 3.4.3의 단순입방체라든가 혹은 격자 위를 비워 두고 모두 지하에 두는 방법 등도 있는데 왜 그런 구성은 없는가?”하고 우리를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의 과제를 통한 어떤 학습효과는, 그 당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던 나에게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거지요. 그 날 이후로 나는 달라져 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반드시 저기서 배울거야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트란스아세아에서 일하다.

졸업한 그 다음날 드로잉 문치를 들고 이태원에 있는 트란스아세아로 무조건 찾아 갔었지요. 졸업하던 해인 1972년 당시는 국내 건축 경기는 바닥이었고요, 그 곳 사무실엔 빈 제도판이 2개 있는 방을 지나 안방에 여러 선배님들(엄 웅, 고주석, 박행일, 이후관, 김영준 등 7, 8인)이 한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실 대표이사로 책임지고 있던 고주석씨가 여기서는 사람 안 뽑는다고 말했지요. 이를 후에 다시 찾아가서, 봉급은 안 받아도 괜찮으니 저기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 그저 선배님들 옆에만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사정하면서, 티자나 트레이싱지 등의 소모품도 다 내 돈으로 그냥 갖고 올 티이고 어떤 잡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미국사무실이라 사람을 쓰면서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엔 아예 고주석 씨의 합정동 자택까지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결국 저의 제안은 일단 받아들여진 셈이었지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월요일부터 그럼 나오라고 하면서 드디어 승낙해 주셨지요. 입사 후 한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상부의 결재를 받고 정식 직원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일 년 동안 근무하였고 천치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었지요. 그때는 왕성한 소화력을 갖추었으나 일 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나에게 일이 오기 전에 선배들 선에서 이미 다 소화되어버려 내 선까지 내려올 기회가 별로 없었지요. 그 외중 담수어수족관, 새문안교회, 속리산사내리 개발계획, 미8군부대일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엔 주로 청사진 굵고, 선배님들 연필 깎아주고 담배나 맥스롱 같은 약 사오는 심부름 등 그야말로 내가 애초 하기로 약속했던 일들을 실천했던 게 더 기억에 남는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고주석씨가 건축 원서를 보는 습관과 일들을 여물게 추적하는 습관을 일찍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봅니다.

이듬해 대학원을 등록하면서 이곳을 떠나, 일양건축(원정수, 지순)에 잠시 근무했다가 윤정섭 교수님의 사무실에서 장세양, 이규성(울산대 교수)과 같이 셋이서 사무실을 꾸려가게 되었지요. 여기서 태평로3가재개발 등을 했고 이때 승효상씨도 우리 사무실에 자주 들리면서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술도 같이 먹기도 하곤 했었지요. 그 외중 주택설계를 할 기회를 가졌지요. 후암동에 있는 135평의 임광토건 회장 집이었습니다. 설계에서 감리까지 직접 하게 된 것은 나로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대학원 논문 등의 이유로 외환은행 영선과로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곳엔 김정철(정림건축)씨가 있었던 자리에 김기웅(삼정건축)씨가 있었고 그 시절 내가 거기 근무했었지요. 이영희(희림건축)씨도 건축가의 입장으로 우리와 자

아틀리에 스타일은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낮을 뿐이겠지요.
 견디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퀄리티를 중요하게 따지는 건축주를 위해서도
 아틀리에에는 아마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대형사무소 위주로 가더라도
 사회의 추세는 다양성이 공간 아닌가요.

주 만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서 2년 정도 되었을 즈음 김기웅씨가 정림건축으로 옮기면서 얼마 있다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정림건축에서 담당 했던 일

정림건축에서 근무하던 6년 동안 우리들은 참 열심히 일했지요. 그 시절 동일 공간에서 같이 호흡했던 동료 선배배들 중에는 실로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요(김기웅, 권도웅, 김창일, 김자호, 박영건, 전찬진, 최태용, 송영규, 백문기, 방철린, 최영집, 서정규, 오정수, 온영태, 박순섭, 제해성, 이광만...). 상호 교류도 잦았고 서로간이 훌륭한 스승이었던 셈이지요. 졸업 후 4년간도 저에게 의미있었겠지만 특히 그 당시 정림에서의 6년은 나의 건축유년시절이었기에 여러모로 각별하였다고 봅니다. 창원시청사(1977년), 여의도MBC사옥(1919), 영락상고(1980), 성내동오피스(1980), 한국은행본점(1981), 전주서문교회(1982년) 등을 담당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사내 동료였던 오정수, 제해성, 이정호(경북대 교수)씨와 함께 1977년 국전 건축부문에 출품하여 문공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지요.

미국HOK에서

뉴욕 HOK에서는 처음 1년은 Assistant Designer로 일하다가 나머지 4년간은 Project Designer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10년간의 실무 경력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프로젝트들은 주로 상업 업무시설들이었고 그중 뉴올린즈에 있는 대형쇼핑몰 콤플렉스(5만5천평규모)를 기획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내의 R&D facility(5천여평)를 기획설계에서 실시설계직전까지 한 후 귀국하였습니다.

드디어 사무실을 차리다

국내 있을 때에 이미 한국건축사 자격증은 도전 첫해에 취득하였으나 그 때도 개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늘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가 나의 주 관심사였던 셈이었지요.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일하느냐 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일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정림으로 돌아 왔었지요. 평소에 개업한다 만다의 개념이 거의 없었던 나에게 회사에서는 늘 빛대어 "이성관 씨는 개업하면 안 돼."라는 투였습니다. 이유는 고집이 세고 개업하게 되면 부딪치게 되는 적용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였고 그 대목은 늘 저를 거슬리게 했었지요. 설계는 잘 해내는데 대외적인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거더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 한 가지

는 분명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었지요. 스스로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과연 내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개업하게 된 이유 중 절반 이상은 여기에서였다고 봅니다.

전쟁기념관 경기설계 5~6등 정도는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응모

그 당시 대형국책사업으로 전쟁기념관이란 프로젝트가 곧 나올 거란 소문이 시중에 나돌았습니다. 5공 때는 독립기념관이고 6공에서는 이 사업이란 것이었지요. 곧이어 나온 응모 요강에 의하면 최우수작1, 우수작2, 가작3, 도합 6개의 티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엉뚱한 망상(?)을 품게 하였던 거였죠. 어차피 당선작은 별들끼리의 전쟁일 터여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내가 마침 좋은 안을 만들게 되고 또한 운이라도 따라 주게 되어 만약 가작 말석이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나로서는 일단 귀국인사는 하게 되는 셈이 되지 않을까하는 헛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선되는 그 친구는 참 좋겠구나라고 막연히 남의 일로 치부하면서 부러워하는 와중에서, 일단 응모접수는 해 놓았습니다. 몇 달 뒤 개업 후에 일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현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두 달여간 이 일에 점차 빠져들면서 막판엔 주위의 도움으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 후 얼마 지나 지방 현장에서 한통의 전화를 연결 받았지요. "당신이 이성관이요? 당선되었으니 내일 14시까지 전쟁기념사업회로 오시오."라는 유선상의 통명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순간이 생생히 아직도 떠오릅니다. 당선 소식을 듣는 순간의 멍했던 시간이지요. 맨 처음 스친 것은, "아, 내가 큰 병을 얻든가 아니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책임까지 져야할 부담에서 그런 생각이 순간 스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4년 반 동안 실로 부대끼면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닫게 해준 잊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된 셈이었습니다.

사무실 차리고 한일들

개업 후 한 작업들 중 주요 프로젝트로는 전쟁기념관(1994서울시건축상금상), 분당쇼핑레저단지(1993경기시설계당선), 대구대성빌딩, 대구알리앙스예식장(1995), 부산민명방송국(1997건축가협회상), 데이콤본사사옥(2000건축가협회상), 거여3단지아파트(2001건축가협회상/서울시건축상은상), 평창동주택419-8(2002), 양구전투기념관(2003), 분당단독주택(2003한국건축문화대상본상), 마포장애인복지관(2004), 수입777(2005한국건축문화대상본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대학건축사협회 건축사지편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후기

내가 보는 건축사 이성관...

건축사 이성관은 내가 보기에 워커홀릭이다. 나의 사무소와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 지내는 편이지만 거의 매일 밤늦도록 사무소에서 일에 빠져있는 것을 보면 마치 '독짚는 노인'이라는 한 편의 영화가 생각난다. 그의 건축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팬시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견고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디테일의 탄탄함이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 송실대조만식기념관+웨스트민스터홀(2008한국건축문화대상대상), 반포577(2009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건축가협회상), 엘타워(2009서울시건축상본상)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규모

현재 감리 2명이고 경리1명 포함 해서 22명이고 통상 20~25명 내외의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연매출은 22억(2009년 기준)정도 되고 늘 경계점에서의 매출이지요.

한울건축만의 차별성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구성원의 작업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위 퀄리티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실시설계를 외주로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테일 레벨까지 우리가 직접 스테디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감리 레벨까지 직접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무실의 규모가 대형화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도 거의 불가능 하게 된다고 봅니다.

거꾸로 약점에 대한 견해

위의 장점은 작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이고, 작업의 생산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의 장점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작업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생산적으로 보면 소모적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후계구도에 대한 나의 생각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으로는 건강이 허락하고 일이 계속 있다면 그 날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나의 견해

오래전부터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지나봐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아들도 건축설계에 종사하다

아들 둘 다 설계를 하는데 파트너로 같이 할 것인가요?
문은 열려있지만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좌우명

별도의 좌우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 있겠지요. 성격이 본시 좀 낙천적이라,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건축을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모든 것은 다 자업자득이고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현재 내가 요 모양인 것은 내가 요만큼 밖에 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탓이란 생각입니다. 사무실 규모는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설계들

현재 공사 중인 작업들로는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여초서예기념관, 송실대학교기숙사, 송실대학교전산센터 등이 있고, 설계 진행 중인 것으로는 송실대학교 교육복지센터, 경희국제캠퍼스 공학관 및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건축계의 양극화에 대한 나의생각

아틀리에 스타일은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낮을 뿐이겠지요. 견디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퀄리티를 중요하게 따지는 건축주를 위해서도 아틀리에에는 아마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대형사무소 위주로 가더라도 사회의 추세는 다양성이 근간 아닌가요.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

첫째 본인이 그 일을 우선 좋아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냥 직업 만으로서의 노력에 비해 사회적 보상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힘들지만 보람은 있는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밀지는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를 지원한 후 후회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후회한 적은 아직 없었고, 건축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하고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마도 영화감독이나 뮤지션 또는 요리사 정도.

한국건축계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거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약한다면, 총체적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그 첫째가 바로 생존 혹은 존립 그 자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특히 대사회적 신뢰회복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